

해부학에서 의사되기를 배우다 - 해부학교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최귀연, 김정민¹, 서제훈², 손현준^{1,2}

충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¹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²해부학교실

간추림 : 의학과정에 들어온 학생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과목이 해부학이고 그 비중은 어느 과목보다 크다. 따라서 의학교육이 의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때 해부학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가는 어떤 의사로 되어 가는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의학교육과정의 여러 단계에 있는 학생들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부학을 통하여 의사에게 필요한 어떤 자세와 가치를 배우고 느끼게 되는지를 면담하고 분석하였다. 해부학 과정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부학을 통하여 학생들은 의사가 되는 길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하고 전문성에 접근하게 된다. 둘째, 학생들은 해부학을 통해 극도의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면서 성장하며, 스스로를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셋째, 학생들은 해부학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넷째, 해부학은 의사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모든 과목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다섯째 해부실습을 위하여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제를 통해 학생들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타적 치료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의료전문성 (medical professionalism)의 핵심은 의사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환자의 이익을 위하는 이타적 치료자로서의 자세이다. 이타적 치료자로서의 자세를 함양하는 데 해부학교육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다른 과목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의학교육을 수행하는 대학과 병원이 영리기관화되어가는 현실적 압력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2009년 6월 19일 접수, 2009년 9월 14일 수정접수, 2009년 9월 21일 게재승인)

찾아보기 낱말 : 해부학, 의학교육, 전문성, 이타성, 내러티브 탐구

서론

의과대학 의학과든 의학전문대학원이든 모든 의학교육기관은 근본적으로 의사 양성기관이며 기본적인 교육목표는 일차진료능력을 가진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4년 동안의 의학 교육을 통하여 의사로서 필요한 품성과 가치관 그리고 지식을 배워가며, 전문성을 키워

나간다. 따라서 의학교육은 일반인 (layman)이던 학생이 점차 의사 (medical profession)로 변모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은 임상학과정을 통하여 습득되는 것으로 여기며 전임상과정 (preclinical course)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의사국가고시가 임상의학 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여 최근의 의학교육과정에서는 임상 과목들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고학년 (2, 3학년)에서 다루어지던 임상의학 과목들이 기초의학 과목들과 통합되면서 저학년 (1, 2학년) 학생에게 일찍 노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의학교육이 시작되는

*본 논문은 2007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손현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전자우편: hjsohn@chungbuk.ac.kr

첫 해에 배우는 기초과목의 비중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임상 과목을 배우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기초과목, 특히 해부학에서도 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맨눈해부학은 Vesalius 이후 5세기 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온 현대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이다.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실험과학(experimental sciences)에 포위되어 연구 측면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고 많은 해부학자들의 연구 관심은 점차 생물학적 실험으로 옮겨가는 실정이다(Warner와 Rizzolo 2006). 그러나 맨눈해부학이 가진 교육적인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의학 분야의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의학교육에 있어서 해부학과 해부실습실에서의 경험은 일종의 상징적 의식처럼 여겨지고 있다(Dickinson 등 1997, Stephenson 등 2001). 의대생은 해부실습을 자신의 적성이 의사라는 직업에 잘 맞는지, 의사라는 전문가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일종의 시험과 같은 관문으로 여긴다(Bourguet 등 1997). 이렇듯, 학생들에게 해부학 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반인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경험과, 의료 전문인들이 쓰는 언어를 배운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특별함을 느낀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나 의학과정은 해부학부터 시작하며 그 비중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크다(Yu 등 2003). 따라서 오늘날의 해부학자들에게 부과된 교육에 대한 부담은 어떤 과목보다 무거우며 자신의 연구 관심과 다른 주제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운명이라면 해부학 교육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그 고유한 의미를 규명하는 일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강화하여 의학교육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맨눈해부학의 교육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의대 학생들의 인체해부실습에 관한 스트레스와 감정의 발달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Dyer와 Thorndike

2000). 시체해부라는 특수한 학습 경험은 여러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끄는 주제여서 19세기에도 시체해부에 관한 감정적 정서적 양상은 전문성 형성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Warner와 Rizzolo 2006). 최근에는 해부학실습 전 후에 학생들이 가진 죽음에 대한 생각과 불안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연구(Dickinson 등 1997)와 해부실습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서적 반응에 대한 연구(O'Carroll 등 2002) 등이 있으나 해부학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경험을 의사되는 과정 전체 속에서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교육학적 영향력과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해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장차 의사에게 필요한 어떤 자세와 가치를 배우고 느끼게 되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해부학 교육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의학교육과정의 여러 단계에 있는 학생들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해부(anatomical dissection)를 통하여 어떤 구조물을 보기 쉽게 드러나게 하는 연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교육적 의미와 영향력을 조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야기'이다. 의과대학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관통하는 해부학 교육의 내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교육학 분야에서 Connelly와 Clandinin이 20여 년간의 현장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이야기를 통해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 데 중점을 두는 연구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하여 일반인으로 입학한 학생이 점차 명실상부한 의대생으로서 의사로서 전문성을 습득하는 과정을 조망하기 위하여 그 과정의 순서대로 절별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Table 1. The reference of the interviewee

Interviewee	Year grade	Sex	Course of entry
A	1st	Male	College of medicine
B	1st	Male	College of medicine
C	2nd	Male	School of medicine
D	2nd	Female	College of medicine
E	2nd	Female	School of medicine
F	4th	Female	School of medicine
G	Graduate	Male	College of medicine
H	Graduate	Male	College of medicine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부학을 이수한 지 6년 이내의 8명이었다. 내러티브 연구를 위해 모든 연구 대상자들을 면담하였는데, 대상자는 학년별 약간 명씩 무작위 선정하였다. 다만 면담 일정상의 시간 조정 문제로 3학년 학생들은 면담에 참여하지 못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면담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는 해부학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이외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모든 면담 대상자들에게 면담을 통한 분석과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약속된 시간에 1인 또는 2~3인 씩 만나서 약 45분간 면담하였다. 조사 내용을 인용함에 있어서 대상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8명 각각의 구분을 학년 순서대로 A~H로 명명하였다. 학년별 출신별 성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실시한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한 후 문서로 정리하였다. 대상자로부터 최대한 진실한 반응을 관찰하고자 해부학 교육을 직접 담당했던 연구자는 본 연구주제에 관한 면담의 실행 및 결과의 해석에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해부학 교수는 이 연구의 초기 단계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사결과와 해석을 충실하게 정리하였다. 교육학 전공자가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면담을 맡아 조사하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내러티브 탐구 방법이다. 내러티브는 ‘story telling’ 즉, ‘이야기하기’로 정의되며,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는 이렇게 인간의 경험에 기반과 초점을 둔 총체적인 질(holistic quality)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예를 들면, 문학이론, 역사, 사회학,

인류학, 드라마, 미술, 신학, 철학, 심리학, 언어학, 교육학, 의학 등)의 연구 방법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Connelly와 Clandinin 1990). 이 논문에서는 면담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Clandinin과 Connelly (1991, 2000)이 제시하는 내러티브 개념과 탐구 절차를 따랐다. 이것은 주제별로 엮인 일상의 에피소드와 그에 대한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들이 모여 만들어진 긴 시간을 공유한 경험 전체를 의미하는 내러티브(Jeon 2008) 과정을 통해 전체를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내러티브 서술 방법을 활용하여 의과대학 구성원들의 에피소드와 기억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러한 이야기들 내면에 숨겨진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할 때 그러한 이야기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는 내러티브(Yeom 2003)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부학 교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에피소드를 해석하는 것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내의 해부학 교육의 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 과

해부학을 통해 의사가 되는 과정을 절별로 서술하면서 각 절에 적합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 해석하였다.

1. 의대생이 되었음을 실감하다.

의대생들은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의대생’으로서 살아간다. 여러 가지 진로를 선택할 여지를 지닌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는 달리 의사라는 특수한 직업인이 되기 위하여 교육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더라도 서로를 독려하며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들은 다 같이 의사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을 주는 관계인 것이다.

의대생이 되었음, 혹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음

많은 학생들은 해부학을 통해서 느끼고 있다. 그것은 해부학이 의대에서 배우는 첫 과목이고 생소하면서도 기대되는 새로운 용어와 인간관계에 파묻히기 때문이다.

F: 그냥 내가 의대생이 됐구나, 그런 느낌을 해부학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직접 해부도 하는 거니까. 뭔가 의대로 (진입했다는), 의사가 되는데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연구자: 학생들이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F: 네. 공부할 때는 죽을 뻔하다가 막상 지나고 나면, 내가 해부학을 통해서 컸다 이런 생각이 들죠.

B: 해부학은 양이 많고 처음 배우는 거라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도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었던 의학 용어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니까, 정말 의대에 왔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의대생들은 처음으로 만나는 방대한 양의 의학 지식 때문에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해부학 실습에서는 신체적 피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경험이 의대생을 더욱 의대생답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스스로를 다져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G: 저희가 배울 때, 3학년 실습 돌 때나 4학년 국시 볼 때도 해부학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 (현장) 나와 가지고 그 부딪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사람을 딱 놓고서 주사를 놓게 돼요. 그러면 ‘아, 근육이 어디 있었더라?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더라...? 뭐 다른 거 건드리면 안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어디 있더라 하는 걸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후회해요. (학교 다닐 때 해부학) 열심히 할 걸 하는...

해부학은 모든 의학 분야의 기초지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해부학 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해부학 지식이 직접 쓰일 때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학생들은 해부학이 모든 임상과목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여기면서 의대생으로, 점차 의사로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고난의 해부학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다.

해부학 과목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는 기대와 두려움도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가지는 일종의 호기심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꼭 넘어야 하는 크고 험한 산으로 다가온다. 의학과 1학년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과목은 인체의 구조(해부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은 학생들에게 기대감과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게 한다. 학점 배당이나 임상에서의 활용도 등 선배들의 진심어린 충고에 따라 학생들은 해부학을 접하기도 전에 긴장하면서 무사히 넘겨야 할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E: 해부학은, 저도 처음 학교 왔고, 또 아무래도 의전원이 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렸고, 그런데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니까. (...) 해부학 때 다 동기들이 처음이고, 해부학이 중요하다고 선배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다 되게 열심히 하고 해서 그 분위기 때문에도 다 같이 힘들었던 것 같구요.

H: 처음에 해부학 할 때도 그 용어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무리 골학을 배우고 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오스티올로지에 국한된거구, 해부학은 양이 훨씬 더 많아서, 용어 배우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새로운 용어가 많고 학습량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경험하는 첫 과목이라는 것과 학점이 크다는 것, 또 해부학 실습에서 느끼는 신체적 피로 등의 모든 요소가 겹쳐져서 해부학은 의대생들이 의과대학에서 겪는 첫 번째 고난이 된다. 그러나 해부학은 도저히 포기할 수도, 대충 할 수도 없는 과목이면서, 의대생으로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D: 어느 부분에 어떤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고, 이런 보이는 것들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런 게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또 해부학은 아까 언니도 말했지만 처음에 하는 과목이라서요. 학점도 되게 크고, 하나도 접해보지 못했던 거고. 의대 와서, 본과 들어와서 처음 접해보는 의학 용어를 해부학이라는 데서 하는데, 그 양도 많고 학점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습이 많은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오후 어느 정도까지 수업을 듣고 실습하면 저희가 빨리 끝나도 여섯시 일곱시 이렇게 하는데. 실습이 도움은 되지만 힘들긴 힘들니까. 좀 체력적인 면에서...

대부분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 고난을 무사히 통과하고 의대생, 의사되는 과정에 무사히 합류한다. 고3 때의 학업 스트레스와 비교했을 때, 의대 공부의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하나같이 의대 공부의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다고 대답했다. 의대에서만 일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유급제도는 학생들에게 진급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G: 갔지.(의대에서 공부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 했으면) 서울대 의대 갔지.(웃음) 왜냐하면요, 이게 다른 게요. 그건(고3 때 공부) 잘 되려고 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이건(의대 공부)는 잘못 안될려고 하는 공부예요. 이걸 잘해봐야 올라가는 거예요, 학년.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의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성장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을 통과한 많은 선배 의대생들은 해부학 과목의 중요성을 후배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후배들의 성장을 독려한다. 겪어본 만큼 해부학 과목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주로 해부학의 ‘무사통과’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를 선배들의 조언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1학년 첫 과목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위치와 의대 전체의 공부하는 분위기 등이 해부학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한 동력으로 생각했다.

D: 동아리나 이런 거 하면서, 선배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 또 학번 분위기가 다 열심히 하는데, 나만 안할 수도 없고... 또 본과 1학년이면 이제 첫 발인데, 힘들다고 안한다고 땡깡 부릴 수 있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해부학 과목이 주는 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차이가

의대생으로서의 성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것이 의사되는 과정에서 꼭 거치는 통과 의례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D: (해부학이) 처음이고, 길고, 약간 실습하면서, 사람들 성격도 나오고(웃음).. 완전 극한의 상황으로 가니까... (열성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저희끼리 하는 골학이라는 학생회 주최로 하는 게 있는데(...) ‘아. 내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웃음) 그러면서 해부학 하면서 그때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부학 하면서 그걸 적용하면서 열심히... 해부학 때도 저희 조가 좀 특이한데, 저희 조가 다들 되게 잘해서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다른 조들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웃음) 해부학 하면서 단체로 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상대에 대한 경쟁심 그런 것도 많이 받고, 내가 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의사되는 게... 뭐 그런 거 많이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해부학을 통해서 같은 조원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서로 경쟁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성장한다.

3. 해부학으로 의학 공부의 길을 열다

의대생들은 의학 과정의 어려움은 방대한 학습량과 쉴 틈 없이 팍 짜여서 돌아가는 시간표에 있다고 한다. 그 전에는 거의 들어볼 수 없었던 전문용어가 해부학을 통해 등장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어려움을 느낀다. 학생들은 해부학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공부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C: 지금도 계속 2학년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의미라기보다는 완전 베이스 과목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과목을 보면 처음에 해부학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쭉 시작을 하고, 해부학을 모르면 지금도 막 해부학 책을 펴보고 봐 가면서 해야 되고. 그 뒤로 좀 이해하는 게 어려운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의대 공부 하는 데 없으면 안 되는 베이스적인 과목이라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

는 해부학이 나오는 모든 과목을 따라가는 데 3배, 4배 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없으면 공부하기 저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F: 이때는 본과 처음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우니까요, 빨리 빨리 공부하는 방법을 자신도 모르게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때 많이 (공부 방법이나 자세를) 다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해부학 실습이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습은 실제 인체(카테바)를 직접 아주 가깝고도 세밀하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이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C: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것 같구요. 밖에서는 전혀 이런 거를 접해 볼 수가 없으니까. 해부 실습 같은 거(...)

D: 해부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실습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고 저희가 그것만. 실습을 안 하고 그냥 책으로만 봤으면, 그냥 배우는 거구나. 이것도 뭐 다른 대학이랑 다르지 않게. 뭐 인체라는 걸 배우지만 아 그냥 배우는 거구나 그냥 그림으로 배우고 말텐데, 배우고 나서 실습을 하면서 내가 직접 어떻게 해 보고. 또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게, 해부학 실습 하면 되게 남들이 보면 ‘아우~ 저렇게 까지!(웃음)’ 그럴 정도까지 하니까 좀 약간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배운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다른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실습과도 다르게 여겨지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 전에 가졌던 의학 공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해부학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고 적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해부학은 내용적으로 모든 임상과목의 기반이 되면서 또한 앞으로 남은 의학과정 전체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보증 같은 발판이 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해부학 과목을 통과하면서 학업 측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공부 방법을 점검하고 터득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점점 의학도의 대열에 합류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4. 해부학이 모든 의학의 기반임을 깨닫다

해부학은 학생들에게 기술(art)로서의 의료보다는 과학(science)으로서의 의학을 인식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기초의학이 임상의학에 얼마나 잘 녹아들어 있는지를 실감하게 해 준다.

E: 저도 1학년 때는 그냥 머리 생각으로는 ‘아 해부학이 기본이지, 기본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그게 기본이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2학년 들어와서 임상과목 배우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게요, 해부학을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았고, 특히 저희가 얼마 전에 끝낸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해부학이 기본이라기보다는 정말 해부학이 거의 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되게 중요했고. 또 여러 가지 과목들에 있어서, 수술적인 접근이나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 수술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거구나 하고...(알 수 있으니까...), 정말 몰라도 뭐 의대를 졸업할 못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알고 그 학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려면 정말 해부학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해부학이 의사되는 전체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학년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대부분 의대 교육과정 전체의 기반이 되는 과목이라고 답변했다. 모든 임상교육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해부학 과목은 기초가 되는 과목이었음을 상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의사가 된 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 전체적으로 의대생활 때, 그리고 지금 의사로서 나에게 해부학 강좌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혹시 후배들이 묻는다면...

G: 저는 열심히 했어도, 안했어도 항상 부족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회할 과목인 거 같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 뭐 어차피 어느 과를 가도, 솔직히 내과를 가도 소화기를 하든, 신장을 하든... 전부 다 (해부학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든, 신경과를 해서 신경 쪽 검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뇌신경까지 어떻게 가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그거 하나하나를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을 거구요. 뭘(진료) 해도 후회할 과목...? 어떻게 해서도 좀 더 할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과목일

것 같아요.

해부학은 이미 의사가 된 졸업생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과정에서 좀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부학 과목이 진행되는 당시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고 지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충대충,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렇게 한 것이 후회된다며, 해부학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해부학교실에서는 선배나 졸업생의 이야기를 통해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졸업생 G에게 다른 무엇보다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인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인 해부학이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그가 한 대답이다.

G: 그렇죠. 도움이 된다고 보다는, 글썄요.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의사가 될 수 있는가는. 여러 가지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상 환자를 하나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피가 어디까지인지. 뭐 그런 거... 사실은 잘 봐야 되는데, (해부학 때는) 사실 빨리 벗기는 데만 (급급하죠). 제가 아주 범위를 많이 저질렀는데(웃음)... 왜냐하면, 빨리 하려고. 그래서 우리 조가 가장 먼저 가기는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거 중요한 건데... 그래서 (후회가 돼요.) 내 의학 지식이나, 내가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그거에 결가지를 치고 학문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뼈대인 것 같아요.

해부학이 진행되는 당시에는 빨리 수업을 마치고 다른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습을 대충 처리하거나 급하게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때는 해부학이 중요하고 필요한 과목이라기보다는 단지 넘어야 할 하나의 크고 험한 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나, 좋은 임상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 과정은 함부로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졸업생들의 생각이었다.

5. 추모제에서 더 의사에 가까워지다

학생들이 받은 가장 큰 충격은 해부실습 전 후에 가지게 되는 위령제와 추모제에 의한 것이다. 해부학 실습 첫 날 실습실에서는 처음 시신을 접하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다소 완화시켜 주고자 간단하게 위령제를 지낸다. 그리고 해부학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뒤 남은 시신과 적출물을 모두 모아 화장을 하고 유골함에 봉안한 상태에서 유족 친지를 초대하여 추모제를 가진다.

실습에 열심히 참여하고 실습대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부학 과목의 중요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냈던 학생들에게도 추모제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H: 추모제 하던 날 그(시신 기증인) 가족분들이 오셔서 되게 서럽게 우는 것을 보면서, 처음 들어가던 날은... 처음 시체 비닐에서 꺼내고, 면도하고 그러면 아오 무섭고 소름끼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아~ 막 짜증난다고, 뻘새난다고 막 이러면서 나오고 하다가... 그 때, 가족분들 막 울고 그러는 걸 보니까 좀 ‘아. 좀 죄송스럽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게 되게...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했어요.)

A: 해부학 듣는 동안 사실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추모제 하면서 조금 울었어요. 후회되기도 하고, 시신 기증하신 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생각이 막 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추모제를 통해서 해부학 실습 기간에 카테바를 물건처럼 소홀히 취급했던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며, 자신들의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실습 대상이 된 시신 기증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지역사회에 되갚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점차 이타적 치료자로서의 품성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

D: 실습을 하면 기증을 받잖아요. 그런거 시작 자체부터가 혼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몸을 내가 해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너희 공부 하라고 주신 건데, 그 시작부터가 주시는 거니까... 그런거...

연구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타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거군요)

E: 학기 말에 추모제 하는데 제가 그거를 썼어요. 그 뭐지...? 추모문? 그거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쓰고 싶어서 쓴 건 아닌데... 제가 쓰게 됐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 분들은 저희가 의대생이고 앞으로 의사가 될 거기 때문에 기꺼이 시신 기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감사함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일단, 내 몸이 힘들니까, 잠이 부족하니까, 전 날 동아리 때문에 술 마셨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습 열심히 못한 거 막...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추모제를 지낸 후 학생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스스로의 생활도 반성하게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공부를 위해 희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된다. 전에는 학습량이 많고 힘든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살피거나 주변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다가 위령제를 통해서 시신 기증인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이 시신을 기증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고 또 자신의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 해부학 과목을 마치고 시신 기증인의 숭고한 뜻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는 의식을 통해서, 소중한 몸을 기꺼이 기증한 그 분들처럼 자신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6. 이타적 치료자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해부학을 꿈꾸다.

이타성 함양에 대한 가능성을 해부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졸업생들의 생각은 해부학 실습을 전후로 치러지는 위령제나 추모제 등을 포함한 일련의 영향력이 분명히 의대생들의 이타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G: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해부학이 (이타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은 (그런 마음들이) 꼭 이어질 때... (효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 해부학을 하고 나서 내과를 배우면서도 강조되고, 의료법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끼워 넣고, 그래서 의학윤리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레지던트들도 인턴 애들도 교육을 시키고 하면 이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될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구자: 과목 하나로는 힘들고. 그런 것(해부학 이타성 강조 관련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면 가능할 것 같다... (는 생각이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생들 생각에는 그 이타성 함양이 지속되기 위해 해부학 과목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전임상과정 및 임상과정(preclinical and clinical course)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타적 전문성을 가진 의사를 만들어내는 데 의대 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해부학 강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해부학 과목을 거치면서 의학 교육 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가지게 되며, 실습과 그 전 후에 치러지는 위령제와 추모제를 통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이타성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가진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H: 위령제 때, 조금 생각했는데. 저도 역시... 그때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해부학 실습 할 때, 좀 잘 해야겠다 그러는데. 시험 전 날 리뷰하고 막 이러면, 그 트렁크 배울 때는 진짜 장기간 다 꺼내는데, 이게 왔다갔다 하면서 막 섞이거든요. 그런 적도 있고, 나중엔 귀찮으니까, 막 아~ 귀찮다고 막 하면서 대중하다가 뭐 묻으면 이렇게 그냥 닦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그러면 안되겠다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다시 그러고 있고, 그렇다고 뭐 위령제를 1주일에 한 번 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음)

연구자: G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도 (시신기증인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내가 저렇게 소중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거니까, 나도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들긴 드는데,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군요. (웃음)

그러나 해부학 과목이 미쳤던 이타성의 영향력은 바쁜 의대 교육과정 속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졸업생들은 지적하였다. 의대 교육 과정상 방대한 양의 지식을 한꺼번에 몰아치듯 배워야 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데 급급하여 이타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시간조차 가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에서 들었던 이타성 같은 타자에 감사나 배려 같은 생각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G: 국가는 결국은 작은 정부를 얘기할 때마다 의료기관 혹은 의료시스템을 다 팔아먹고 있어요. 기업한테. 또는 자본한테 다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 이미 법제도 자체로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게끔 민영화가 다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 병원들에 다녀야 되는 그 수많은 돈을 내야 되는 엄청난 돈을 빚을 지면서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윤리교육, 도덕교육, 따뜻한 마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빛 값이야 돼요, 개네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문제들도 이타적 감성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졸업생들의 의견이다. 해부학이 또 다른 여러 과목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이타적 의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과목의 스트레스와 비싼 등록금이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쌓이게 되면 의료행위에서 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무성의한 의료인을 양성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각 대학의 의, 약학 계열 대학 등록금은 그 대학에서 제일 높다. 그 비싼 등록금을 대출받아서 내고 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남을 위해 봉사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빛 값고 현상유지 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위해 살아도 어려운 지경이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타적 치료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기 어렵다는 것이 졸업생들의 생각이었다.

고 찰

학생들은 해부학이 다른 과목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또한 의사가 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부학 과목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다.

해부학은 학생들에게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해부학을 통해 ‘의대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스스로 자세를 다잡을 수 있게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생소한 용어들을 처음 경험하고 말로만 들던 해부학실습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의사가 되어 가는 과정에 합류하고 있다고 느낌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생활태도를 점검하고 적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부학은 단지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학에 분야의 언어를 가르치고, 기술로서의 의학보다는 과학으로서의 의학을 인식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기초의학이 임상의학에 얼마나 잘 녹아들어 있는지를 실감하게 해 준다. 또한 해부학 실습 과정을 통해서도 전문성을 습득하게 된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해부학적인 구조들을 찾고 공부하면서 시신을 처음 접했을 때의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둘째, 학생들은 해부학을 통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한다. 학생들은 이 시기에 엄청난 학습량을 단시간에 소화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 생활은 거의 신경 쓰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삭막해기도 한다. 이들은 자기 자신밖에 생각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힘들어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든다. 높은 압력에 의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듯이 (pressure makes diamonds), 해부학을 배우는 동안 학생들은 엄청난 학습량과 그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한 압박감 속에서 단련(Purpura 2006)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단련되면서 이어지는 의학교육 과정에 더욱 쉽게 적응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의대나 병원 안에서 겪게 될 더 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해부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의대생들은 처음으로 해부 실습실을 들어설 때, 이 과정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불안과 공포 같은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대개 교수진은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하면서 경험하는 감정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체계화하여 다루지는 않지만 (Smith와 Kleinmann 1989), 학생이 스스로 터득하여 제어하도록 지켜본다. 의대에서만 일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유급제도는 학생들에게 진급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그 스트레스가 해부학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에 가중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를 맞게 되고 이를 극복하면서 학생들은 의사되는 과정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해부학을 통해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학생들은 해부학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엄청난 학습량을 단기간에 소화하게 된다. Smith와 Mathias (2007)에 의하면, 의학 교육에서의 과도한 학습량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략적인 방법을 터득하여 공부하게 만든다고 한다. 학생들은 해부학을 배우면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만의 공부 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또한 해부학은 의학 공부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때 느낀 의학 공부에 관한 인식과 공부 방법은 앞으로 남은 의학 공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해부 실습을 통하여 같은 조원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거나 격려하면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장한다. 학생들은 조원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실습을 하다보

면, 조원들과 다양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의사가 되었을 때의 팀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지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다. 또한, 시체를 대하면서 미래의 자신의 환자에 대한 감정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Bourguet 등 1997, Dinsmore 등 2001).

넷째, 해부학은 의사되는 과정에서 의대 교육과정 전체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해부학은 모든 임상교육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기초가 되는 과목이었음을 새삼 상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의사가 된 후에도 모든 임상적 치료과정의 기반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미 의사가 된 졸업생들에게 해부학 과목이 더욱 큰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부학 과목의 중요성이 학부과정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해부학 실습 전 후에 가지게 되는 의식인 위령제나 추모제를 통해 학생들은 이타적 품성을 지닌 의사에 가까워져 간다. 의료전문성 (medical professionalism)의 핵심은 의사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환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타적 치료자로서의 자세이다 (Stobo 등 2001). 학생들은 이 의식을 통해 시신 기증인의 숭고한 뜻에 감동하며 그 동안의 태도나 생각에 대해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된다. 기증인의 큰 뜻에 조금이나마 부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려 하고, 의사가 된 이후에는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해부학을 배우는 동안 그 중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조차 마음가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이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받은 도움을 의사가 된 이후에 환자들에게, 또 지역사회에 갚아야겠다는 결심을 잠시 동안이라도 하게 되므로 이타적 치료자로서의 품성을 함양하는 데 해부학교육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해부학이 이타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평가가 졸업생들에게는 있었지만, 재학생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해부학에서 이타성을 함양하는 기능은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부학 과목을 통해서

받은 이타적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감성적 충격은 이후 교육과정에서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다. 졸업생들이 지적인 바와 같이, 이어지는 교육과정에서 이타성을 어떻게 더 조직적으로 강조하는가와 학생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미래에 의사가 될 이들의 교육단계에 사명감을 결합시켜 이타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의대 졸업이 의사에게 필요한 교육이 끝난 것이 아니듯이 넓은 의미의 의학교육을 수행하는 기관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의사들의 환경과 분위기(milieu and atmosphere)가 중요하다. 병원이 영리기관화 되어가는 현실적 압력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또한 중요한 요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Bourguet CC, Whittier WL, Taslitz N : Survey of the educational roles of the faculty of anatomy departments. *Clin Anat* 10: 264-271, 1997.
- Clandinin DJ, Connelly FM : Narrative and story in practice and research. In Schon D (ed.). *The reflective tur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pp 258-281, 1991.
- Clandinin DJ, Connelly FM :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2000.
- Connelly FM, Clandinin DJ :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 2-14, 1990.
- Dickinson GE, Lancaster CJ, Winfield JC, Reece EF, Colthorpe CA : Detached concern and death anxiety of first-year medical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 gross anatomy course. *Clin Anat* 14: 201-207, 1997.
- Dinsmore CE, Daugherty S, Zeitz HJ : 20. Students responses to the gross anatomy laboratory in a medical curriculum. *Clin Anat* 14: 231-236, 2001.
- Dyer GS, Thorndike ME : Quidne mortui vivos docent? The evolving purpose of human dissection in medical education. *Acad Med* 75: 969-979, 2000.
- Jeon HW : A narrative inquiry about the adjustment of three children in consolidated small school. *The study of anthropology education*. 11(2): 53-92, 2008. (in Korean)
- O'Carroll RE, Whiten S, Jackson D, Sinclair DW : Assessing the emotional impact of cadaver dissection on medical students. *Med Educ* 36: 550-554, 2002.
- Purpura DP : Pressure makes diamonds. *Clin Anat* 19: 2-3, 2006.
- Smith AC, Kleinmann S : Managing emotions in medical school: Students' contacts with the living and the dead. *Soc Psychol Quart* 52: 56-69, 1989.
- Smith CF, Mathias H : An investigation into medical students' approaches to anatomy learning in a systems-based prosection course. *Clin Anat* 20: 843-848, 2007.
- Stephenson A, Higgs R, Sugarman J : Teaching professional development in medical schools. *Lancet* 357: 867-870, 2001.
- Stobo JD, Cohen JJ, Kimball HR, LaCombe MA, Schechter GP, Blank LL : *Project Professionalism*, 7th ed., Philadelphia.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pp 2-7, 2001.
- Warner JH, Rizzolo LJ : Anatomical instruction and training for professionalism from the 19th to the 21st centuries. *Clin Anat* 19: 403-414, 2006.
- Yeom JS : Narrative in educational research: The concept, procedure, and dilemmas. *The Study of Anthropology Education* 6(1): 119-140, 2003. (in Korean)
- Yu SH, Kim NK, Lee MS, Lee SH, Chi JG, Hwang EH : *Anatomy, Branches of Medicine and Choices*, Seoul, Korea Institute of Medicine, p 85, 2003. (in Korean)

Abstract

**Becoming a Doctor through Learning Anatomy
– Nar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Gwi-Yeon Choi, Jeong-Min Kim¹, Jae-Hoon Seo², Hyun-Joon Sohn^{1,2}

*School of Medicine, ¹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²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education i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a layman into a medical professional. Anatomy is a major, primary subject for students entering medical school. How students learn anatomy is important for becoming a doctor.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at influences students to get their values and attitudes as an altruistic healer, and to develop professional competence from educational courses in the medical school. We focused on how the lessons and disciplines of the anatomy course guided medical students to become doctors. Interviews of narrative inquiry were conducted in which the students and graduates talked about the experience of learning in their course-work.

Anatomy is an important subject for medical students, at both the cognitive and the emotional level. Through learning anatomy, students adapt their emotions and attitudes to the medical profession and become bona fide medical students. They face very stressful condition at first, but they learn how to adapt to their circumstances. They studied with passion, and could develop their own way of studying. Besides, they felt that they were gradually becoming health experts by learning medical terminology, and could enhance their professionalism by practicing anatomy. Indelible experiences in dissection laboratory and rite in memory of cadaver donors evoke deep reflection on thankfulness and altruism.

This study addressing the issue of altruistic professionalism in anatomy will have to be continued by following students into the preclinical and clinical years. Public concerns with commercialism in teaching hospitals and schools are also emphasized.

Key words : Anatomy, Medical education, Professionalism, Altruism, Narrative study